

“‘간판’보다 잠재능력·흥미 살피라”

진로지도와 선세의업

교육 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의 본질관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의 수단관이다.

교육의 수단관은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관은 '교육은 인간존엄성의 신념 아래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양대 관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의 수단관이 특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크게 이룩하였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관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발전이 과연 인간 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해 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며 이로 인하여 교육의 본질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의 이상적인 상태는 두 관점을 통합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이 곧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우리가 모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을 바로 진로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진로 지도의 원리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3>



그림 · 이준석

전생과 현세 합친

‘先世業’ 거슬리면 힘은 힘대로 들면서 좌절·갈등 나타난다

의 번영'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그 개인은 학습에 몰입하게 되고 만족감과 희열감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직업사회의 현황, 발전에 관한 자세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여 자기 적성에 알맞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신장을 근간으로 하여 진로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기 있는 직업, 사회적 평판이 좋은 직업을 정해 놓고 그 직업을 향한 교육을 한다면 자칫 갈등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개인의 불행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대학 진학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 보기로 하자.

대학 진학의 목적에는 귀속적 목적(歸屬的目的), 실용적 목적, 내재적 목적이 있다.

귀속적 목적은 대학이라고 하는 배경에 개인을 귀속시킴으로써 성취되는 이득을

말한다. 귀속적 목적만을 추구하여 대학에 진학한다면 세상 일류대학의 일류학과를 나와야 하며 이 배경은 평생에 걸친 개인의 간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의한 대학 진학의 시기는 지났다. 왜냐하면 간판보다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실용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적 목적에서는 대학을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수단이나 통로로 생각한다. 즉, 대학은 인기도 높은 직업을 얻는 통로로 여겨지며 그 대학 그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도 또한 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직종의 변화와 직종의 분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기 직업은 내일의 사양 직업이 되며, 있었던 직종이 없어지고 없었던 직종이 새로이 나타나는 현 사회에서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수는 없게 되었다.

내재적 목적관이라 함은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함을 말한다. 그 학문이 좋아서 그 학과의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 방면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할 때 비로소 잠재적 능력의 최대한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헌할 수 있다.

얼마전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한 바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어른들이 듣는

오늘의 인기직업 내일 사양직종 될수도 부모의견보다 개인행복·사회공헌 고려

형식을 취했는데 이 때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진로문제를 예로 들면, 부모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우리들의 적성이나 성격을 고려한 후 의견을 주장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미래에 유망한 직업 쪽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진로를 권하신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아직은 외관상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흥미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 보고 싶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정신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알려주면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님 쪽에서 마음과 귀를 닫으신 채 부모님 의견만을 고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직종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공헌의 정도는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실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는 직종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성적이 사회적 출세의 예언요인(豫言要因)이었지만 그러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운동, 음악, 연극, 정치, 기업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

게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학교 성적이 우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 능력의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불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것은 업(業)의 소산이라고 본다. 유식불교(唯識佛敎)에서 말하는 업을 단순화하여서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무리가 따른다. 업중에는 공업(共業)과 별업(別業)이 있으며 이러한 업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 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잠재적 능력의 차이는 업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엄경 토솔공중 계찬품(華嚴經 兜率宮中 僞讚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여러 중생들은 선세에서 지은 업에 따라 이와 같이 각각각색이며 서로 갈지 않음을 나타낸다.(隨諸衆類 先世所集業 如是種種 示現各不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세소집업(先世所集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소집업'이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세소집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흔히 '전세'와 '선세'를 동일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양자를 구분한다. 전생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이전의 삶이고 선세는 전생과 현재까지의 삶을 합친 것으로 본다.

잠재적인 능력을 '선적으로 타고난 소질'로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오늘의 잠재적인

능력에는 선천적인 소질도 있었지만 금세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룩된 소질도 함께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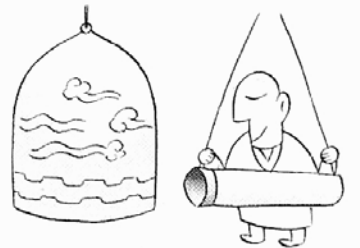
음악에 잠재적 능력이 있는 자는 전생의 음악적 업과 현세의 음악적 업이 통합된 상태로 되어서 이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업을 전생의 업-선천적으로 타고난 소질-으로만 규정짓는다면 속명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릴 때 음악적 환경에서 자랐으며 음악적 경험을 많이 함은 금생의 업을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부처님의 선세라는 말씀은 전생과 현세의 지금까지의 시간의 통합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금생에 깨달은 사람은 전생에 불도를 많이 닦은 업을 지니고 금생에 태어나 더욱 용맹 정진한 사람일 것이다. 논리를 이와 같이 전개하면 진로지도는 선세소집업(先世所集業)에 따라 해야 한다. 만일 이에 거슬리는 진로지도라면 어떤 힘은 합대로 들이면서도 갈등과 좌절을 느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는 진로지도야말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공헌을 이룩하는 길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도구(道具)’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쓰이는 연장 연모 등을 말한다. 필기 도구 건축도구 가재도구 등으로 사용된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용구이자 물품이다. 그러나 도구가 나쁘게 이용되면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출세의 도구로 삼았다” “우정을 도구로 삼아 세속영달에 급급하지 말라”는 등으로 변질한다.

도구의 어원은 철저히 불교용어에서 시작된다. 원래 도구의 진의는 수행하는 스님이 불도를 닦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잘 알려진 불교 도구는 목탁 운판 법고 범종의 4물(四物)과 염주 발우 축비 등이 있다.

대표적인 도구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목탁은 법회의식이나 사찰경내에서의 생활에서 대중에게 무엇인가 알리는 신호로 쓰인다. 독경이

도구(道具)

목탁 등 불도 닦기위한 보조물 수행용구처럼 꼭 필요한 물건

나 염불할때 두들겨서 박자를 맞추고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사용하며, 아침저녁에 예불할 때 절을 할 때를 알리기 위한 신호로 쓰기도 한다. 목탁이 도구로 사용된것은 고기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눈을 뜨고 있음을 본뜨기 위함이라고 한다. 수행자들에게는 잠이 큰 마군이다.

불사차원에서 조성되는 도구로는 범종이 대표적이다. 불법(佛法)의 종소리는 지하의 모든 지옥 중생에게까지 고통을 벗게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준다. 결국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건지기를 염원하는 소리이다.

출가 재가자를 포함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하는 도구는 역시 염주. 염불하거나 절을 할때 돌리면서 수를 세는 도구이다. 백팔번뇌의 녹여버리도록 하는 108염주, 27단주 등 다양하다. 그밖에 스님들이 쓰는 도구로 불자(拂子)가 있다. 큰스님들이 법회의식에서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불자를 들고 계시는데 이 불자는 번뇌의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상징으로 쓰인다.

도구는 수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체의 용구이다. 이런 진의를 지닌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야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다.

※참고: 안길호, '이판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한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T) (0591)747-0106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민족의 정기 서린 백두산

순례지
심양-연길-백두산-용정-도문
-북경-대동-오대산-북경-청도

백두산성지순례 8일 ₩1,150,000

순례지
상해-보타산-영파-황주-황산-구화산-남경-상해

구화산·보타산 성지순례 8일 ₩1,150,000

중국불교성지순례 일정안내

- 출발일
- 구화산·보타산코스 : 10월 21일, 11월 18일
- 동참금 : 1,150,000원
- 20명 이상 신청시 출발일 조정 가능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 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02)3270-3471~3 워동마린투어 ☎(02)711-0111